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아가야...

The Strength to Face and Future

金圭泰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Gyu-Tae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역대회장님!

건설교통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해 주신 손학래 건축기획관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공사업무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본 협회 제30회 정기총회에 함께 해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1965년에 첫 출발을 시작한지 어제로 만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회고해 볼 때, 협회는 격변하는 현대사의 가파른 격랑속에서 실로 많은 변화와 괄목할 성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외부세력의 거센도전에 직면하는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회원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건축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협회로 성장 발전시켜 왔습니다.

과거, 건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건축사들은 황량한 이 땅에 풍요로운 인간 삶의 공간을 창조해 내기위해 혼신의 정열을 쏟아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자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요 자부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난 30년동안 우리는 우리들 앞에 산적했던 여러 난관들을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앞에는 우리가 미처 예측조차 하지 못한 상황들이 새로운 난제로 닥쳐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건축계의 현실은 세계각국의 경쟁자들에게 우리의 시장을 열어주고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비 건축사가 자본을 앞세워 기업의 속성인 이윤추구를 위해 시장개방에 대한 대처 논리로 건축사를 고용하여 건축설계를 겸업케함으로써 세계와 경쟁하고 부실의 책임한계도 가릴 수 있다는 일부건설사의 설계업 허용주장은 도목설계는 모르되 건축설계만은 단호히 저지되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이 나라의 건축문화를 비건축인에게 위임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일이라 하겠으며, 후세에 물려줄 건축문화 창출은 반드시 건축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만이 이 나라 건축이 생존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지난 임시총회에서 우리는 건축계의 재도약을 위해 협회를 정점으로 한 건축개혁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축개혁은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건축계의 문제점을 청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격변하는 변화의 시대에는 기존의 틀에서 깨어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내부적 합의와 결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축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 건축인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변화와 변신을 애써 외면하려만 들고, 목전의 이익에만 매달리려는 건축인들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얼마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가 말해주듯이 안이한 자세로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등한시한 결과는 결국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며, 또 국민으로부터도 지탄과 외면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몇몇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그같은 과오가 대다수 성실한 건축인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었으며, 또 지난날 피땀흘려 쌓아 온 공적과 업적들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무너뜨려 놓았는지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이같은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견실한 건축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이 땅에 건축문화 창달의 영구한 뿌리를 내리는 일에 우리 건축사가 나서서 주도적 역할을 성실히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노력해 나가십시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희생자가 죽들께도 하루속히 몸과 마음의 상처가 쾌유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제 30성상의 나이를 맞은 우리 협회는 오늘을 기점으로 역사적 재도약을 이룩해 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계에 내재된 모순과 가치의 혼란을 극복해 내는데 앞장섬은 물론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구심적 역할을 다해 낼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30주년에 즈음한 이 시간, 이 자리가 한국건축의 오늘을 지켜온 우리 건축사들에게 새로운 시발점으로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코져 합니다.

1995. 10.24